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갈망한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여행, 공동체

고든 데이비드슨 지음

환멸(幻滅)이라는 말이 있다. 허깨비(鬼)가 사라졌는데도(滅) 기쁨보다는 괴롭고 속절없는 마음이 든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대변해주는 단어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작 허망해진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거짓말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내가 잘못 그려 놓은 허깨비에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외롭다. 그래서, 더 많은 허깨비를 타인에게 그려 놓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종 환멸을 느끼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희망이다.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는 느낌을 갈망한다’는 말로 시작되는 책이 나왔다. 시리우스 공동체의 창설자인 코린 맥클플린과 고든 데이비드슨의 저서 ‘더 나은 삶을 향한 여행, 공동체’는 ‘대안적 생활을 고민하는 생태 공동체 만들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불어 넣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일깨워준다. 책은 공동체의 의미부터 따진다. 공동체라는 단어에는 일치(unity)라는 말이 포함돼 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들과 의식적으로 협동한다는 뜻이다.

과거 부족과 마을의 개념이 쇠퇴하면서 최근 대안 공동체들이 나오고 있다. 공동체는 처음엔 단순한 자급자족하는 삶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된다. 그러다 서서히 사회 환경과 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유기농 관련 사업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저자들은 공동체의 진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 환경오염, 에너지 문제, 인간 소외, 실업, 지구적 차원의 자연재해 등을 인류가 함께 고민할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공동체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여정에 길 안내도를 그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또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기존의 사회와 교류하고 적응하

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몇몇 사람의 ‘독특한 집단’이 아니라 사회의 병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흔히 공동체라고 하면, 주류 사회에서 이탈해 구성되는 독특한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자생력을 잃게 된다.

분명한 것은 공동체는 더 나은 삶을 구상하고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곳이라는 점이다. 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세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또 지난 23년 동안 공동체를 꾸린 저자들의 경험과 100여 곳의 다양한 공동체를 15년에 걸쳐 방문한 기록 등을 소개했다.

〈생각비행·2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동체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준다. 사진은 일본 젊은이들이 전통 음식을 만들어 농촌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리틀 포레스트 2 : 겨울과 봄'의 한 장면.

현실과 환상, 진실과 허구 넘나들며 자유분방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기린이 아닌 모든 것

이장욱 지음

무명작가였다가 사후에 유명해진 화가가 있다. 뉴욕현대미술관의 초대장을 받아 마자 자살로 추정되는 의문의 사고로 실종돼 신비로운 이미지를 남긴 그의 이름은 정귀보. 출판사로부터 다급한 청탁을 받고 화집을 겸한 평전 집필에 착수한 화자(話者)는 특이할 만한 것이 없는 그의 이력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그의 삶을 추적하면 할수록 우스꽝스러운 ‘진짜’ 정귀보의 모습이 드러나고 화자는 난처해지고 만다. 이장욱의 단편 소설 ‘우리 모두의 정귀보’는 읽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이다.



그밖에 텔런트 출신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다 결국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 병력 있는 막노동꾼의 칼에 찔려 인생을 마감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칠레의 세계’, 15세기 화가 안 반 에이크의 대표작인 그림을 제목으로 삼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배우 하스 레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고국을 찾은 한국인 인양아, 1960년대 히피문화, 베트남전에 참여한 사내가 등장하는 ‘울드 맨 리버’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학과학지성사·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의 소설들은 현실과 환상, 진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자유분방하게 펼쳐진다. ‘이반 멘슈 코프의 춤추는 방’에서는 가스토비 저질로 커지는 귀신 들린 방이 나오고 ‘어느 날 욕실에서’에는 자기 집 욕실에 죽은 지 오래된 여성 시체가 나타났다고 믿는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의 소설들은 현실과 환상, 진실

새로 나온 책

▲상황의 심리학=심리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학자 샘 소머스의 상황과 맥락의 힘. 하버드와 예일, MIT, 다트머스, 코넬 등에서의 명강의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꼭 듣고 싶어하는 수업’으로 꼽힌다. 책은 상황의 심리학을 적용해 복잡한 일상을 명쾌하게 분석,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힌다. 상황의 심리학의 힘을 빌리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다. 〈책읽는수요일·1만4000원〉

▲조선국왕 연산군=연산군의 광기와 고독, 사랑을 그린 팩션 역사서. 연산군은 시를 쓰는 폭군이었다. 사회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자를 품어 안았다. 책은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 연산군의 고독하고 우울했던 어린 시절, 사립



과와 훈구파의 권력 싸움, 무오사화, 갑자사화 등을 연산군이 남긴 어제의와 함께 재구성하고 팩션 형식의 글로 풀어내고 있다. 〈책문·1만4000원〉

▲행복 뇌 접속=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신경가소성 분야 최고 권위자 리크 헨슨이 쓴 책. 저자는 뇌의 부정적 성향 때문에 우리는 특히 부정적 경험에 의해 바뀌기 쉽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뇌는 유년기에 초고도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학대, 방치, 굶주림, 왕따, 차별 대우, 호된 질책, 가난, 재정적 어려움, 부담스러운 비밀, 비굴한 경험, 배척, 가정불화, 부상, 장애, 질병



같은 유년기의 문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담앤북스·1만8000원〉

▲피스메이커=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임동원 회고록 개정증보판. 초판이 출간된 2008년 이후부터 2015년 봄까지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추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남북고위급회담 성사로 이어졌음에도 대북전단 살포 목적으로 유명무실해졌음을 지적하는 대목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비일관성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에필로그에서는 2010년대에 맞는 평화통일을 위한 담판과제를 제시했다. 〈창비·2만5000원〉



▲킬링 케네디=베스트셀러 작가 빌 오라일리과 마틴 두가드의 ‘킬링’ 시리즈 두 번째 책. 사건의 치밀한 재구성을 통해 존 F. 케네디는 전 해병대 출신이자 소련 망명 전력이 있는 친공산주의자 리 하비 오스월드가 쓴 총에 맞아 죽는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그의 죽음으로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고 마는데… 〈아름드리미디어·1만5000원〉



▲과학으로 풀어난 철학입문=과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합을 시도한 책. 의미, 기능, 정보, 표상, 목적, 자유, 도덕 등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고찰해 온 중요한 개념들을 다룬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유사 존재’는 사물의 세계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발생해 점차 진화해 우리가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발달해 왔다고 말한다. 〈학교도서관저널·2만원〉

어린이 책

▲엄마가 정말 좋아요=일본 작가 미야니시 다쓰야 작품. 일상에서 아이가 본 엄마의 모습과 아이가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을 대비시켜, 아이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아이의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아이가 잠들고 나서야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길벗어린이·1만원〉



▲1등 했는데 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역몽요걸’의 내용을 사랑이와 평화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냈다. 또래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공부해 와 해는



지, 공부할 때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방학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수업 시간에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지,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풀빛·1만원〉

▲내 인생의 첫 멘토, 리더=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간디, 김대중, 프랭클린 루스벨트, 넬슨 만델라, 장준하, 체 게바라, 살바도르 아옌데, 빌리 브란트, 노무현 등 아홉 명의 정치인의 이야기로,

한 편의 CF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글과 사진으로 꾸며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작은숲·1만6000원〉

▲아빠의 직업은 범인?!=타이완 교육부 인권 교육상 수상작. 신즈 아빠가 전과 지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편견과 차별이 아들 신즈에게 대물림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대부분 어른들의 그릇된 말과 행동에서 비롯됨을 보여 준다. 〈푸른숲주니어·9500원〉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성춘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신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성춘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 /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070㎡ 매 6억5천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검색어: [고창에 집짓기] [전원주택]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완성된 그림 가로 65cm×세로 53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펜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